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2020. 4월

Vol.2

ISSN 2713-9387

# 모음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KOFICE

## I 특집기획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각국의 문화지원정책

5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 II 세계는 지금 | 정책 동향

16 1. 문화예술 :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EU, 멕시코, 태국

19 2. 문화산업 : 영국,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아르헨티나

21 3. 문화재 : 폴란드, 터키

22 4. 체육 : 터키, 벨기에, 태국

23 5. 관광 : 호주, 싱가포르, 프랑스, 벨기에

## III 세계는 지금 | 이슈 동향

26 1. 오스트리아가 신설한 예술문화부,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 발표

30 2. 한국의 소프트파워, 한류문화를 선두로 부상

34 3. 코로나 팬데믹 현실화되면 '세계 GDP 1조 증발'

## IV 이달의 담론 | 2020년 한-러 상호교류의 해, 새로운 문화 소통을 생각하다

## V What's on KCC abroad | 재외한국문화원 4월 활동계획

# III

## 세계는 지금 이슈 동향

- 1 오스트리아가 신설한 예술문화부,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 발표
- 2 한국의 소프트파워, 한류문화를 선두로 부상
- 3 코로나 팬데믹 현실화되면 '세계 GDP 1조 증발'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가 신설한 예술문화부,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 발표

오스트리아는 많은 고전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로 ‘문화 민족 (Kulturnation)’이라 일컫는다. 2차 대전 패전 후 궁핍한 상황에서 1945년 12월 새로 출범한 공화국의 초대 총리 레오폴드 피글은 취임사에서 오스트리아가 전쟁으로 영토가 줄어들어 “작지만 위대한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문화 민족’ 개념은 오스트리아의 자부심일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서도 실제로 근간을 이루었다. 종전 후 정부가 출범하기 전임에도 빈 필하모니가 정상화 되어 감동적인 공연을 펼쳤고, 전쟁으로 파괴된 오페라극장도 복구 되는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문화예술 분야는 전후 복구가 빨리 이루어진 편이었다. 심지어 문화예술인들은 끼니를 걱정하던 궁핍한 시기였음에도 1945년 <잘츠부르크 축제(Salzburger Festspiele)>(1920년~)를 중단 없이 개최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화적 자존심을 지켰다. 그런 연유에서 지역 축제인 <잘츠부르크 축제> 지원이 연방정부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다.<sup>1</sup>

1 BGBl. Nr. 147/1950, Errichtung eines "Salzburger Festspielfonds"

잘츠부르크 축제 (사진 출처: 잘츠부르크 축제 홈페이지)



## 전후 75년 만에 문화예술계 대변하는 부총리급 문화예술 전담부처 신설

올해 2020년, 오스트리아는 '2차대전 종전 75주년', '잘츠부르크 축제 100주년', 그리고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동시에 기념하는 뜻깊은 해다. 아울러 올해 1월에는 오스트리아 역사상 처음으로 대안 정당이었던 녹색당이 보수 국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정부 구성에 녹색당이 참여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다. 오스트리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처럼 문화예술과 체육, 그리고 공공행정 등 방대한 업무를 다루는 <예술문화, 공공행정 및 체육부>가 신설되었고, 특히 문화예술 장관이 총리 다음 2인자로 부총리를 겸하는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문화 민족'이라는 정부 출범 당시 선언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정부내에서 문화예술 업무는 교육부, 국무총리실, 심지어 외교부 업무에 통합 운영되어왔기 때문에, 금년 1월 발표한 신정부의 집권 청사진에는 과거 문화예술 분야 업무와는 다른 새로운 청사진들이 <정부업무계획> (Regierungsprogramm 2020-2024)에 포함되어 있다.<sup>2</sup>

2 Aus Verantwortung für Österreich. Regierungsprogramm 2020-2024, Jan. 2020(총리실 발간)

### 오스트리아 정부업무계획 2020-2024



2024년까지 오스트리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계획에는 오스트리아 예술과 문화의 국제경쟁력 강화, 문화예술 환경 개선,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문화예술인 지원 확충, 문화예술 분야에서 혁신적 성장, 전문인력 확충 등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과거 정부의 정책목표에 비해 무엇보다 새로운 정책은 문화예술 여러 분야에 대한 다양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다.

유럽 '클래식' 문화의 본고장인 오스트리아는 그동안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Wiener Philharmoniker), 잘츠부르크 축제, 빈 분리파(Wiener

Secession) 미술 등 세계 최고의 클래식 문화콘텐츠를 무기로 문화강국임을 자타로부터 공인받아 왔다. 오스트리아가 그동안 전통 클래식 문화 콘텐츠에 대한 지원정책에 힘을 쏟았고 그것이 대외문화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오늘날 오스트리아 문화예술에 대해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클래식’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특정 문화콘텐츠에만 집중되어, 반면에 영화와 대중예술, 현대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이 소홀했다는 비판이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오스트리아 문화정책을 연구한 정치학자 마리는 크납(Marion Knapp)은 정부가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원 대상은 수십 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sup>3</sup> 잘츠부르크 축제나 빈필, 오페라 등과 같은 클래식 전통문화에 집중되는 바람에, 이른바 ‘동시대적인’ 문화예술 활동은 소외되었다는 것이다.

<sup>3</sup> ORF, "Österreichische Kulturpolitik" (2017.04.08)

## 문화예술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문화예술계 권익 옹호에 역점

하지만 이번 정부 업무에서는 이들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 테크노 허브(Culture Tech Hub) 사업이 대표적이다. 기존의 전통 예술과 문화 활동에 새로운 기술과 디지털 세계가 융합된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오스트리아를 전 세계 융합 문화콘텐츠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미디어아트 분야 예술가들의 성지라고 같은 린츠의 ‘아르스 엘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와 같은 대표 상품을 개발하여 경제적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전략이다.

린츠 Ars Electronica 미디어 아트 전시물 (사진 출처: ars.electronica.art 참조)



아울러 오스트리아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숙원 중 하나인 ‘공정한 댓가(Fair Pay)’ 확보가 정부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 자치단체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실천한다는 서로 합의했다. 또 정부가 문화예술인과 계약하는 사업 중 여러 해에 걸쳐 시행할 경우 물가 상승률과 연동한 계약금액 반영(인건비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원스톱(One Stop)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지원 대상 선정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이 모두가 문화예술계에서 오랫동안 정부에 요구해 왔던 것들이다. 또한 여성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정책도 강화돼 성 평등 원칙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금은 남녀 동일하게 지급하는 등, 성별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공연예술계, 문화부가 신속히 구제 절차에 들어가

3월 10일, 오스트리아 정부는 코로나 사태 확산에 대한 첫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취한 것이 100인 이상 실내공연, 500인 이상 실외공연 및 체육행사에 대한 금지 조치였다. 갑작스러운 발표로 많은 공연단체와 문화예술인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술가노조나 작가노조 등 이해당사자들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저지 대책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스트리아 문화부 역시 공연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가들과 단체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문화부 홈페이지<sup>4</sup>에 피해 구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분야별 상담 코너도 개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당장 생계의 위협을 받는 예술가들을 위해서는 예술가보험 등에서 신속지원하는 구제책을 발표하는 등, 앞으로 더 길어질지도 모르는 문화예술계의 코로나 불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4 [www.bmkoes.gov.at](http://www.bmkoes.gov.at)  
참조

# 한국의 소프트파워, 한류문화를 선두로 부상

본 내용은 해외문화홍보원의 “해외 싱크탱크 보고서 이슈브리핑 제8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원제 Global Soft Power Index 2020 (2020.02.)

발행처 英 Brand Finance(브랜드 파이낸스)

링크 <https://brandirectory.com/globalsoftpower>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가 올해 최초로 국가별 ‘글로벌 소프트파워 지수(Global Brand Power Index 2020)’를 발표했다. 미국이 종합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14위를 기록했다.

## ○ 소개

영국의 브랜드 가치평가 및 전략 컨설팅 업체인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sup>1</sup>는 올해 최초로 국가별 ‘글로벌 소프트파워 지수(Global Brand Power Index 2020)’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브랜드 파이낸스는 60개국에 대한 소프트파워를 측정하기 위해 대중(18~75세, 87개국, 54,206명)과 전문가(71개국, 1,021명, 싱크탱크, NGO, 미디어 등에 소속된 자) 집단의 설문 의견을 바탕으로 소프트파워를 계산하기 위한 7가지 척도를 제시했다. 평가분야는 ▲친근감(Familiarity), ▲영향력(Influence), ▲평판(Reputation)과 함께 ‘7대 소프트파워 분야(7 soft power Pillars: ▲산업·무역 ▲거버넌스 ▲국제관계 ▲문화·문화재 ▲미디어 ▲교육·과학 ▲사람·가치)’이다. 이들은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통해 국가별로 소프트 파워 영향력과 순위를 매겼으며 소프트 파워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sup>1</sup> 1996년 런던에서 설립된 후 국가브랜드 순위와 금융·계약·IT서비스 등 산업별 글로벌 순위를 조사·발표하는 기관

## ○ 국가별 평가결과

[표2] 브랜드 파이낸스 글로벌 소프트웨어 지수 2020 국가별 순위(1~20위)

순위	국가	총점	친근감	영향력	평판	산업·무역	거버넌스	국제관계	문화·문화재	미디어	교육·과학	사람·가치
1	미국	67.1	8.6	7.7	7.1	6.6	4.3	6.2	5.5	5.2	6.6	3.9
2	독일	61.9	7.9	6.0	7.4	6.8	5.5	6.4	5.4	5.0	5.9	4.2
3	영국	61.8	8.2	6.3	7.3	5.8	4.7	6.3	6.0	5.1	5.5	4.5
4	일본	60.2	7.6	5.8	7.5	6.9	5.4	5.1	5.7	4.1	6.5	4.7
5	중국	58.7	7.6	7.1	6.5	6.6	3.4	5.4	5.2	2.9	5.1	2.8
6	프랑스	58.5	8.1	5.8	7.1	5.8	4.4	5.8	6.4	4.7	4.2	4.3
7	캐나다	54.5	7.4	5.0	7.5	5.7	5.2	4.9	4.7	4.6	4.3	5.1
8	스위스	54.5	6.9	4.7	7.6	6.7	5.6	5.0	4.8	4.5	4.8	4.8
9	스웨덴	51.9	6.4	4.2	7.4	6.2	5.3	4.6	5.1	4.3	5.0	5.0
10	러시아	51.0	7.2	5.7	6.3	4.0	3.1	5.6	4.9	3.0	4.1	3.5
11	이탈리아	49.3	7.6	4.8	6.8	4.9	3.2	3.7	6.2	3.2	3.2	4.6
12	네덜란드	48.9	6.3	4.2	7.1	5.6	4.9	4.2	4.7	4.4	4.0	4.6
13	호주	48.8	7.0	4.3	7.2	5.4	4.8	3.8	4.7	3.7	3.6	4.8
14	한국	48.3	6.7(14)	4.5(14)	6.7(20)	5.8(7)	3.8(19)	3.6(21)	4.3(28)	3.5(15)	4.6(8)	4.2(18)
15	덴마크	47.7	5.9	3.8	7.2	5.6	5.2	3.9	4.8	3.9	4.2	4.9
16	스페인	47.6	7.5	4.7	6.9	4.5	2.9	3.4	5.8	3.3	2.6	4.7
17	노르웨이	47.3	5.8	3.8	7.3	5.3	5.1	4.0	4.5	4.1	4.4	4.7
18	아랍에미리트	45.9	5.8	4.7	6.6	5.5	5.1	4.7	3.9	3.2	3.0	3.1
19	벨기에	45.5	6.2	4.0	6.9	5.1	4.4	3.9	4.3	3.6	3.2	4.4
20	싱가포르	44.8	6.1	3.9	6.8	5.4	3.9	3.3	3.9	3.2	4.3	3.9

### 미국

미국은 소프트웨어 지수에서 큰 격차로 종합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둘러싼 논란과 국제적으로 엇갈린 반응에 ▲평판(13위)과 △거버넌스(16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친근감 ▲영향력 △미디어 교육·과학의 영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 유럽

유럽대부분의 국가들은 소프트 파워 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독일은 2위에 올랐으며 영국은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차이로 3위를 차지했다.

유럽 내 1, 2, 3 순위는 독일, 영국, 프랑스이다.

## 일본

일본은 아시아에서 1위, 종합 세계 4위를 차지하며, 모든 평가요소에서 상위 10위 안에 든다. 경제적 성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소비지출과 높은 수준의 기업투자 혜택으로 ▲산업·무역 영역에서 1위를 기록했다. 또 ▲교육·과학 등 연구 개발에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

## 한국

한국은 ▲산업·무역(7위) ▲교육·과학(8위)에서 선두권에 들었으나 ▲문화·문화재(28위) ▲평판(20위)에서 비교적 낮은 순위를 기록해, 종합 14위에 들었다. 반기문 前 UN 사무총장은 본 보고서의 기초연설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류, 한국음식, K-뷰티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부상에 대해 언급했다. 소프트파워를 통해 한국에 대한 세계적 이미지가 제고됐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닮고자 하는 국가들도 나타나고 있음을 덧붙였다.

## 인도

다른 국가들을 참고해보면, 경제적 성장에 따라 소프트파워도 비례해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인도는 큰 경제시장과 세계 2위 인구를 지님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소프트파워 지수를 가지고 있다.

## 중국·러시아

중국과 러시아는 압도적인 존재감에도 불구하고, 소프트 파워 지수에서 각각 5위와 10위를 차지했다. 두 나라는 ▲영향력보다 ▲평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은 각각 2위, 7위인 반면 ▲평판 부분에서는 24위, 26위로 떨어진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며 ▲산업·무역부분에서 5위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 부분에도 투자를 쏟고 있는 중이다.

## 하위 3개국

카자흐스탄, 이라크, 미얀마 소프트 파워 지수 평가에서 하위 3개국으로 선정되었다.

## ○ 동 조사에서 사용한 소프트파워 분야별 속성(Soft Power Characteristics)

### ①산업·무역

- 튼튼하고 안정된 경제
- 기업하기 쉬운 환경
- 세계가 사랑하는 제품과 브랜드

### ②거버넌스

- 정치적 안정성
- 법치 및 인권
- 높은 윤리기준 및 낮은 부패정도
- 안전·치안
- 리더들에 대한 존경

### ③국제관계

- 외교가에서의 영향력
- 타국과의 좋은 관계
-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
- 환경 보호를 위한 행동

### ④문화·문화재

- 풍부한 문화유산
- 방문할 만한 장소

### ⑤미디어

- 영향력 있는 언론
- 신뢰할 만한 언론
- 유심히 살펴보는 사안들
- 좋은 커뮤니케이터들

### ⑥교육·과학

- 튼튼한 교육 시스템
- 과학 분야에서의 리더
- 기술 분야에서의 선도

### ⑦사람·가치

- 우호적 태도(friendly)
- 재미(fun)
- 관대한 태도(generous)
- 관용적 태도(tolerant)
- 믿음만한 정도(trustworthy)

## ○ 항목별 평가 결과

▲ 친숙함 상위3개국: 미국(8.6점), 영국(8.2점), 프랑스(8.1점)

▲ 영향력 상위3개국: 미국(7.7점), 중국(7.1점), 영국(6.3점)

▲ 평판 상위3개국: 스위스(7.6점), 일본·캐나다(7.5점), 독일·스웨덴(7.4점)

\* 한국: ▲ 친숙함 6.7점, ▲ 영향력 4.5점, ▲ 평판 6.7점

# 코로나 팬데믹 현실화되면 ‘세계 GDP 1조 증발’

\*본 내용은 해외문화홍보원의 “해외 싱크탱크 보고서 이슈브리핑 제7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원제** Coronavirus pandemic could cut world GDP by \$1tn (2020.02.19.)

**발행** 英 Oxford Economics(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링크** <https://www.oxfordeconomics.com/my-oxford/publications/540003>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현재 중국에서 대유행중인 코로나19가 아시아 대륙과 유럽으로 확대될 시, 경제 분야에 미치는 될 파급력에 대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 ○ 소개

코로나19는 중국의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단기간에 크게 약화시켰고 전 세계 경제도 위축될 전망이다. 이에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2020년 GDP 성장 예측률을 6%에서 5.4%로 하향조정 한 바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될 경우를 가정하여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중국과 인접 아시아국에 국한되는 ‘아시아 대유행 시나리오’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전 세계적 대 유행(pandemic) 시나리오’이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각 시나리오에 따라 옥스퍼드 글로벌 경제 분석 모델을 적용해 코로나19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될 영향력을 전망했다. 코로나19는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발생했으나, 이란과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본 보고서의 예측은 매우 주목해 볼 만하다.

[표] 시나리오 구축 방식과 GDP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시나리오 구축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스, 돼지열병 등 기존 선례를 근거로 시나리오 구축</li> <li>•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타격이 2020년 1분기 및 2분기에 집중되고,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여파가 감소하는 것으로 시나리오 구축</li> </ul>	
GDP에 영향 끼치는 요소	선택성 소비 감소	전체 소비의 40%차지. 확진자 발생, 외출 자제 등의 영향을 받음
	노동 공급 감소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이 불가능한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생산에 차질 발생
	관광 감소	감염 우려로 인한 여행과 관광 지출 급감
	투자 감소	불확실성, 수요 감소, 공급사슬에 대한 지장으로 투자 감소
	금융 시장 파급 효과	주가 하락과 단기 금융 상품의 가격 상승 등

## 1. 아시아 대유행 시나리오

**2020년 한 해** 세계 GDP는 기준치<sup>1</sup>에 비해 4천억 달러(0.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의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 경제활동과 무역이 제한되면서 세계적인 경제적 위기가 우려되었으나 미국 환율 감소와 같은 정책 조치로 부분 상쇄되었다.

**2020년 상반기** 세계 GDP 성장률 전년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반등이 예상된다.

**아-태지역 GDP 성장률** 2019년 말 4%, 2020 상반기 1.5%를 기록하며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중국의 2020년 1분기 성장률은 전년 대비 2.6%로, 이는 30년 만에 최저치이다.

**회복세**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상반기에는 큰 경제적 타격을 입지만, 2021년 후반에는 기준치에 가깝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 결과 도표 참고)

<sup>1</sup>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이전에 예측한 수치로 아래 도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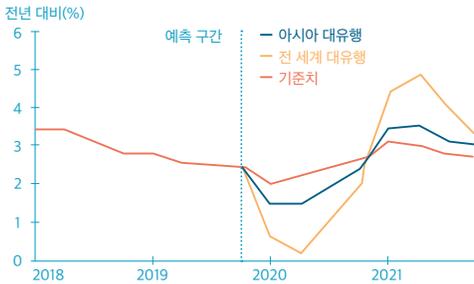
## 2. 전 세계 대유행 시나리오

**2020년 한 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크게 번지면 세계 GDP 성장률은 기준치보다 1조 1천억 달러(1.3%)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했다. 또, 2020년 상반기 세계 경제 성장률은 0%에 가까이 달하며 미국 및 유럽연합국들에서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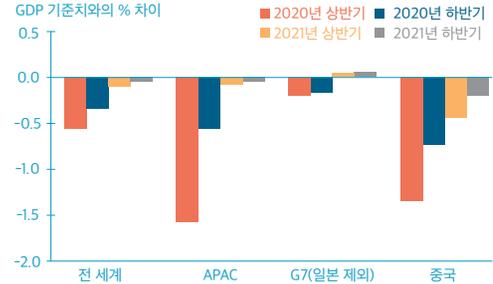
**회복세** 코로나19는 세계 GDP에 짧지만 매우 가파른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나, 바이러스가 잡힌 이후 세계 경제는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 ○ 분석 결과 도표 모음

〈공통〉 세계 GDP (두 시나리오 모두 상반기 급감)



〈아시아 대유행〉 세계 GDP (20년 상반기 손실<sup>1</sup>)



〈아시아 대유행〉 아-태지역 성장률 (10년 내 최저치)



〈전 세계 대유행〉 GDP 성장률 (선진국에 타격적)

